

‘학원 순례’ 학생들 감염 확산 우려...학부모들 ‘전전긍긍’

광주 최대 학원가 봉선동 코로나 감염 대비

광주지역 최대 학원가 밀집 지역인 봉선동에서 확진자가 발생,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초비상이 걸렸다. 학원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매일 챗배퀴 돌 듯 일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봉선동 일대에만 300여개 학원들이 몰려있는데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은 벌써 이들 학원을 통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 준비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자칫 확산세로 학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가격리 조치가 확대되면서 자칫 학교조차 못 가게 되는 건 아닌지 학원발(發) 확산세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광주 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구민 2명이 모두 학원 관계자로 알려지면서 이 일대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초긴장 상태다.

당장,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 강사와 학생, 학부모 등 77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는데,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된 상태다.

봉선동의 경우 300여개 학원이 밀집한 광주지역 최대 학원가 밀집 지역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국·영·수학과 과학 과목 등 여러 과목을 학원을 돌며 배

상당수 학생 일대 학원 돌며 수강
다음달 중간고사 준비 돌입 속
학업 일정 차질 빚을까 걱정 태산
학원 잇단 휴원·인근 카페 텅텅

우는 교습 방식이 일반화돼 있어 감염 확산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확진자 발생 소식이 알려진 4일 봉선동 학원가 주변은 문을 닫은 학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학원에 간 자녀들을 기다리며 삼삼오오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는 장소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A커피 피습을 찾는 손님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확진자와 관련성이 있는 학원 외에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휴원을 결정한 학원도 적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다음주 일시 휴업을 할 지 여부를 고민하는 학원들도 상당수인 실정이다.

인근의 한 수확학원에는 이날 등원키로 했던 학생 중 3분의 1가량이 나오지 않았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지만 중간고사를 앞둔 중학교 3학년과 고교생을 제외한 초등학생, 중 1~2



봉선동 학원발(發)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4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학원 입구에 긴급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고(왼쪽), 인근 카페에는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년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학원들은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입구를 폐쇄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보니 학원·학부모들 모두 불안하다”면서 “다음주부터 일주일 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다음달 초 예정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사일정에 변화가 생길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봉선동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될지 걱정이 많다”며 “학사일정이 바뀌면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집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쌓일

텐데...”라고 우려했다.

곽은영 남구보건소장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동료강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포함 7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라며 “6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택 무너져 4명 매몰됐다 구조...2명 사망

광주서 목조 한옥 리모델링 중
안전사고 예방 조치 여부 조사

공사 중이던 주택이 무너지면서 작업중이던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구청 등은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4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가에서 91㎡ 규모 목조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날 사고로 건물 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던 4명의 인부가 무너진 건물 터미에 깔렸다가 한시간여 만에 순차적으로 구조됐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구조된 4명 중 2명이 숨졌다. 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나자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60여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붕괴된 건물은 50년 이상된 목조 한옥 단독 주택으로, 지난날 중순부터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이날은 내부 목조 건물 뼈대 보강 공사를 하던 중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당국은 붕괴 건물이 흩발돌 구조로 중장비 활용이 어렵고 매몰된 인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점 때문에 구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안전 사고를 방지할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일 오후 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붕괴돼 4명의 인부가 매몰된 광주 동구 계림동의 무너진 가족에서 마지막 매몰자가 소방관계자들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LPG 충전소 화재...36시간만에 진화

광주 광산구서...인명피해 없어

광산구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난 화재가 36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가 난 LPG 충전소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폭발이 컸음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전소 내 잔여 가스를 모두 태우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완전히 꺼지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이번 폭발 사고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도심 내 LPG 충전소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LPG 충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LPG 충전소 사무실과 주변 건물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LPG 충전 차량이 저장탱크를

채우고 간 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 과정에서 유출된 LPG가 폭발·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20t 용량의 저장탱크에 3t 정도의 LPG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이후 배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2차 사고를 우려, 저장탱크 온도를 낮추며 잔여 가스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에 나서 36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20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